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2월 26일(목) 16: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창의산업정책과 조영신 과장(2110-4581), 김태희 사무관(2110-4582)
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장(2110-5397), 강규형 사무관(2110-5194)

두뇌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화

◈ **기획, 설계 등 제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, 디자인, 임베디드SW, 시스템반도체(SoC), 바이오업종의 챔피언 기업 육성**

1 **(선 정) '18년까지 총 300개 고급 두뇌 전문기업 선정**

2 **(지 원) 전문기업에게 인력, 기술,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**

① **인력** : 엔지니어링 개발 연구센터 (EDRC) 등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(1,500명) 양성 및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 취업 지원

② **기술** : 고급 두뇌 전문기업 전용 R&D 프로그램 신설 ('14, 130억원) 두뇌산업 전용 SW 공동 지원센터 구축 ('14, 90억원)

③ **자금** : 고급 두뇌 전문기업 전용펀드 조성 ('14, 150억원) 및 융자지원 ('14, 300억원)

□ 산업통상자원부 (장관 : 윤상직)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**「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」**을 확정·발표

※ 고급 두뇌 전문기업 : **두뇌 업종*** 분야에서 단순 생산이 아닌 **기획·설계** 등의 **능력을 보유**하고 **他완제품의 高부가가치**를 **창출**하는 **전문 기업군**

* 정보화·기계화를 통한 **자동화가 어려우며**, 이에 **생산설비투자**보다는 **전문지식**, **창의성** 등의 **고급인력역량**이 **경쟁력**을 좌우하는 **업종**
- 두뇌업종 例 : 엔지니어링, 디자인, 임베디드SW, SoC, 바이오 등의 **업종**

○ **두뇌산업**은 **기획·설계** 등과 같은 **산업 가치사슬 상위 분야**로 **他 산업으로 파급효과**가 **크고**, **고급 일자리 창출**이 가능하나,

-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 대비 **기획·설계 역량**이 **취약**[1]하고 고급 인력 부족 등으로 **핵심 서비스나 부품**을 **대부분 외국에 의존**[2]

1) 우리나라는 기획, 개념설계 등 同 고부가가치 영역에 취약하고 생산설계, 시공 등 저부가가치 영역에 강점
2) 국산화율 : 자동차 ECU 등 SoC분야 5%內, 자동차 등 임베디드SW분야 10%內

○ **금일 발표한 대책**은 지난 7월 **"고급 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"**의 **후속조치**로

- **주요내용**은 **▲ 고급 두뇌 전문기업 선정, ▲ 두뇌업종 전문인력 양성, ▲ 전용 기술개발사업 마련, ▲ 자금지원 등 성장사다리 구축 지원을 골자로 세부 지원책을 담고 있음**

【 지 원 도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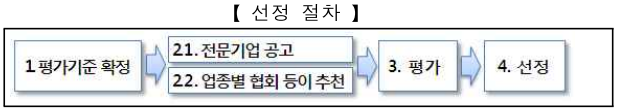


□ (기업선정) '18년까지 두뇌 산업분야에서 **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고급 두뇌 전문기업을 300개 선정 예정**

* ('14) 50개 → ('15) 50 → ('16) 50 → ('17) 50 → ('18) 100

○ '14년부터 기술혁신역량 (최근 3년간 R&D 투자실적, 전문인력 보유율 등), 재무적능력 (최근 3년간 매출액 등) , 성장가능성 (매출확대 전략 등) 등을 고려하여 **민간 합동으로 선정평가위원회**를 구성하여 **선정 예정**

【 선정 절차 】



□ (육성) **성정된 300개 고급 두뇌 전문기업**에 대해 **인력, 기술개발, 자금** 등을 **패키지化하여 집중 지원**

① (전문인력) 엔지니어링, 디자인, 임베디드 SW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 분야에서 **年 1,5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**하고, **고급 두뇌 전문기업으로 취업**을 적극 지원

○ (인재양성) 주요 대학 컨소시엄으로 **「엔지니어링 개발 연구센터(EDRC)」**를 **신설**하여 **공과대학의 엔지니어링 교육·연구기능 강화 지원** (산업부, 年 30억원)

【 엔지니어링 개발 연구센터 지원 내역 】

구 분	세부 지원 내역
분 야	고급엔지니어 확보가 시급한 분야 (오일&가스, 발전, 해양) 中心
지 원	① 장단기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 ②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③ 우수교수진확충* 및 인재양성 ④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* 우수교수진 양성을 위해 EDRC 참여교수 우대방안마련 (프로젝트로 SCI논문대체)
규 모	'14년 30억원(1~2개센터) / 총 6년(3+3년)

- 이와 더불어, **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**[1]과 **설계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**[2]도 확대 지원 (산업부, 年 80억원)

1) 특성화대학 : ('13) 3개 → ('20) 6, 2)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: ('13) 1개 → ('20) 10

○ (취업연계) EDRC, 특성화 대학과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대학 등에서 배출된 인력을 **고급 두뇌 전문기업에게 취업 지원** (산업부, '14~)

【 취업연계 프로그램 】

▲ 『고급 두뇌 전문기업 인턴쉽 프로그램』 : 재학생들의 실무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재학기간 중 6개월 정도 **인턴쉽 과정을 특성대학** 등에 반영
- **인건비는 EDRC 사업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매칭 지원**

▲ 『특강-취업 코칭』 : 고급 두뇌 전문기업 CEO·인사담당자가 '희망이음프로젝트 강의'가 개설되는 대학에 **'특강 및 취업코칭"** 지원
- 지역 기술인재의 취업 촉진 사업 ('14, 20억원)을 활용하여 지원

○ (해외인재유치) 두뇌업종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**인건비 지원사업***을 추진

* **'14년**에는 **시범적으로 10명의 엔지니어링 고급 두뇌**를 **유치·지원** (10억원)하고 **수요를 고려**하여 **점진적으로 지원규모, 지원분야 등을 확대**

- 중장기적으로, 해양플랜트 등 **우리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,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** 등을 **전문적으로 지원**하는 **「한국형 CORE」 설립 추진**을 위한 **기본계획 수립** ('14.7)

② (기술개발) 고급 두뇌 전문기업을 위한 **전용 기술개발사업을 신설**하고, **SW 지원 인프라도 구축 지원** ('14~, 산업부)

○ (R&D) **「고급 두뇌 전문기업 전용 R&D 프로그램」**을 마련하여 **同 기업의 상용화 및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** ('14~, 산업부)

* '14년은 기존 R&D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(상용화 : 90억원, 핵심기술 : 40억원)
'15년부터는 **'전용 R&D 지원 프로그램'**을 마련하고 **지원규모 확대 추진**

○ (SW인프라) 두뇌산업별로 제품설계, 서비스 기획 등에 필요한 **高價의 SW**를 **공동으로 활용**할 수 있는 **「SW 공동지원센터*」 구축 지원** ('14~, '14 90억원, 산업부)

* (SoC분야 사례) ETRI 내에 **「SW-SoC융합 R&BD 센터」**를 **설치**하여 **SoC 설계환경 및 검증 지원 등의 기업지원 활동 수행**

③ (성장사다리 구축)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금융활성화, 지재권, 브랜드化 등 **기업성장에 필요한 환경 제공**

○ (자금지원) **고급 두뇌 전문기업**에 **집중 투자**하는 **「두뇌기업 펀드」** 출시 ('14, 150억원, 산업부)하고, **단계적으로 확대**

- 이와 더불어, **'R&D사업화 전담은행*'**을 통해 **고급 두뇌 전문기업**에게 저금리 (시중금리 대비 약 2%p 인하) **융자 지원** (年 약 300억원 규모)

* **산업부 R&D 전담기관 출연금** ('13년, 약 3조 3,000억원)의 **예치를 조건**으로 **기술개발 성공기업**에 **여신우대 (年 3,000억원) 및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**

○ (브랜드化) **고급 두뇌 전문기업 영문·한글 인증서·마크**를 제공하여 **기업 자체 광고**뿐만 아니라, 코트라 등을 통해 **해외 홍보 지원**

○ (우대制) 고급 두뇌 전문기업에게 **보증보험 제출면제**[1]와, **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**[2] 지원 ('14 : 산업부, '15~ : 他 부처로 확대)

1)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"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" (발급 수수료 발생 등) → "계약이행 확약서 제출"로 대체하여 시간과 비용 절약
2) 계약 후 선급금 지급비율을 최대 80%까지 확대(통상 30~50% 수준)

○ (지재권) 국내 최대 지식재산전문회사인 ID社 (Intellectual Discovery社)를 활용하여 **고급 두뇌 전문기업 전용 지식재산권** (IP) **서비스 제공** ('14~, 산업부)

- 두뇌업종 **'IP POOL'**을 구축하여 **통상·전용 실시권을 제공**함으로써 **제품생산 및 특허분쟁을 측면에서 지원**

【 고급 두뇌 전문기업 지재권 경쟁력 제고 지원도 】



□ (향후계획) 산업부는 금번 **"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"**의 **세부 추진과제**를 **차질 없이 수행**하고, 앞으로 **두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**해 나가겠다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강규형 사무관(☎ 02-2110-51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| 두뇌산업 현황

◈ (시장) 주요 두뇌산업의 **'12년 글로벌 시장은 약 9천억달러 규모**

* 엔지니어링 (1,422억달러), 디자인 (920), 임베디드SW (1,552), SoC (1,960), 바이오 (3,047)

- 국내 시장은 세계시장의 약 5% 정도인 500억달러 규모이나, **高부가가치 분야의 경우 해외 기업에게 대부분 잠식***

* 국산화율 : 자동차 ECU 등 SoC분야 5%內, 자동차 등 임베디드SW분야 10%內

◈ (기업) 주요 두뇌업종에 종사하는 **우리기업은 약 9천개 정도**로 파악되나,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**글로벌 기업대비 기술수준이 취약***

* 선진국대비 국내 기술수준 : 엔지니어링 (70~85%), 디자인 (87.1%), 임베디드SW (77%), SoC (74.5%), 바이오 (60~70%)

1 엔지니어링*

* (개념) 플랜트 및 SOC 건설의 **기획·타당성 조사·설계** 등 **가치사슬의 전방에 위치한 핵심영역**
  - 부가가치가 조립·가공에서 **설계·관리 영역으로 이동 중**이며, **엔지니어링 기능 없는 조립·시공 능력만으로는 사업참여에 한계**

□ (시장) 세계 시장은 '12년 기준 1,430억달러[1] **규모**로, 미국·EU 등의 **글로벌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**을 차지[2]

1) 세계시장 규모(억달러) : ('06) 819 → ('08) 1,168 → ('10) 1,172 → ('12) 1,422
2) 미국, EU, 호주 등의 세계 225대 수출기업이 전체 매출의 87.7%를 차지
  - 글로벌 225대 수출 기업중 우리기업은 삼성ENG 등 11개사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1.4%에 불과

○ **국내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약 68억달러** 수준 (세계시장의 0.4%)로 정부 SOC 예산 삭감 여파 등으로 **'09년 이후 감소 추세**

* 국내시장 규모(억달러) : (07) 51 → ('08) 66 → ('10) 68 → ('12) 68

□ (기업) **대부분 영세 중소기업**[1]이며, 핵심기술·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기본설계 등 **고부가가치 영역은 거의 외국기업에 의존**[2]

1) 총 3,635개 기업중 일부 대기업(108개사), 중견기업(164개사)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(전체 기업의 93% 차지). 전체 기업중 매출 30억원 이상, 1인당 매출액 1억 이상인 기업은 367개社에 불과

2) 例) 인천대교 건설의 공정관리(英) 구조설계(日) 등 **주요 엔지니어링 영역**을 **선진기업이 독점**하고 **국내 기업인 삼성물산은 시공** (1.3/2.4조원)만 담당

○ 국내 기업들은 상세설계, 시공 등 **低수익·高리스크 영역**에서는 **강세**인 반면, 기획·개념설계 등의 **고부가가치 영역은 매우 취약**

- 더불어 **가격경쟁력**을 앞세운 **후발국의 도약**으로 **기존 강점분야**에서도 **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**

★ (事例) **韓 삼성엔지니어링 (주)**

- '70년이후 타당성 검토부터 설계·조달·공사·시운전 등에 이르는 **엔지니어링 全 분야**에 **솔루션**을 **제공**하는 **국내 최고**의 **엔지니어링 전문회사**
- '08년이후 **年평균 37%이상 성장률**을 **기록**하며, **'12년기준 25개 해외거점**에 **7천2백명 전문인력을 보유**, **'12년 엔지니어링 매출액은 약 10억불 달성**

* '12년 처음으로 100억불을 돌파하여 114억불의 매출을 달성, 엔지니어링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中 약 10% 수준

★ (事例) **英 AMEC***

* 1,800년에 설립이후 석유, 가스, 광업, 청정에너지 등의 **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전문 서비스 업체**

- **글로벌 엔지니어링 Top 10 업체**中 **매출액** 기준 **7위**이나, **전체 매출액**대비 **엔지니어링 매출 비중**이 **약 90%**로 **제일 큰 엔지니어링 전문기업**
- '12년기준 **글로벌 40개국에 지사**를 **설치**하여 **2만8천명 전문 인력을 보유**하고 **'12년기준 전체 매출액**은 **약 800억불**이며, **엔지니어링 매출액**은 **약 700억불** 수준



2 디자인*

* (개념) 제품의 외관을 개선하는 **스타일링 디자인**에서 제품개발 **초기부터 디자인을 활용**하는 **엔지니어링 디자인까지 해당**

- **부가가치율**[1]과 **고용창출효과**[2]가 높으며, 제품·시각·환경·포장디자인으로 구분되며, 최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 중

1) 디자인 67.5, 반도체 30.8, 조선 30, 2) 디자인 16, 자동차 7.9 (韓銀, '10)

□ (시장) 디자인이 **기업활동의 핵심가치**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디자인 시장은 **'12년 약 920억달러 규모로 성장**

* 세계시장 규모(억달러) : ('06) 839 → ('11) 891 → ('12) 920

○ **국내 디자인 시장** 규모는 '10년 71억달러까지 성장하였으나, **GDP 대비 비중은 오히려 하락**

* 국내 시장규모(억달러) : ('06) 69 → ('08) 52 → ('10) 71
- GDP 대비 디자인 산업 비중(%) : ('06) 0.8, ('08) 0.5, ('10) 0.66

□ (기업) 세계 시장은 단순 스타일링에서 벗어나 **제품의 컨셉 설계, 엔지니어링 디자인** 등 **제품·서비스의 기획 중심으로 변화 중**

○ 그러나 **우리 디자인 전문기업**은 **대부분 영세** 기업으로 여전히 **단순 스타일링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**에 역량이 집중*

* (규모)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 (디자인진흥원 신고기준)는 총 3,900여개사로 **매출 5억원 미만, 인력 5인 이하의 소기업이 대부분**
(분야) 대부분 스타일링 디자인을 주로하고 있으며, **기획형 디자인 전문기업은 30개사 안팎**에 불과

★ (事例) **韓 뮈샤** (Mucha)

- 단지 15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, '12년 기준 매출액 700만불 (100% 제품디자인)을 달성하는 등 국내 **最高의 주얼리 디자인 전문기업***

* **미스코리아 티아라 디자인**으로 **유명**하며, 한류 콘테츠 등을 활용하여 제품경쟁력을 확보 중

★ (事例) **美 IDEO**

- 약 5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年 매출액 1억불 (100% 서비스 디자인)의 **세계 최대 디자인 기업**
- **애플, MS, 도요타, 스타벅스, IBM, 삼성** 등 글로벌 기업의 제품 기획디자인 뿐 아니라, 보스톤항 등 **'공간(Space) 디자인'**, 은행 지급결제 서비스 등 **'서비스(Service) 디자인'**, 현대카드 등 **'브랜드(Brand) 디자인'**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



3 임베디드 SW*

* (개념) **제품에 내장되어 대상기기를 자동 제어하는 SW 산업**
  - **제조업의 급격한 전장화***와 더불어 **제품의 지능화·첨단화**가 **기업 생존의 필수요소**로 **임베디드 SW의 중요성**은 **더욱 커짐**
    * 자동차 전장율 : ('00) 22% → ('10) 35% → ('20) 50% (NIPA, '10)

□ (시장) **제품의 전장화 가속화**와 더불어 **세계 시장***은 지속적으로 확장중
  * **세계 시장** (억달러) : ('03) 1,014 → ('10) 1,343 → ('12) 1,55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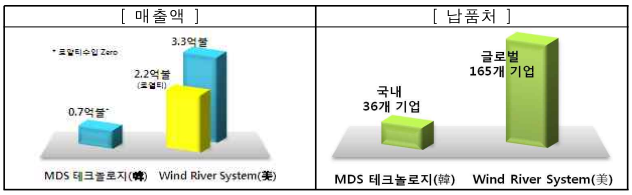
○ **국내 시장은 '12년 기준 158억달러** 규모로 **향후 5년간 매년 9% 이상씩 급성장**하여 '17년에는 251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

□ (기업) 자동차, 조선 등 완제품의 세계적 경쟁력에도 불구하고, **국내 임베디드 SW기업***의 **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70%** 수준
  * 국내 약 400여개 기업이 활동중이나 대부분 일반 SW 개발·판매도 병행중으로 핵심 분야 기술력 축적은 부족

○ 이에 따라 **핵심 임베디드 SW는 해외 기업에 의존**하고 있는 실정
  * (車) KPIT(印), 보쉬(獨), 지멘스(獨), (항공) 록히드마틴(美), BAE 시스템즈(英)

★ (事例) **韓 MDS테크놀로지**
- **국방·항공 임베디드 SW전문기업**으로 '12년기준 매출액 0.7억불이며, 전문인력 210명을 보유한 **국내 最高**의 **임베디드 SW분야 기업**
- **현대차, 삼성전자 등 약 36개 국내 기업에 임베디드SW를 납품중**

★ (事例) **美 Wind River Systems**
- **자동차, 항공기, 스마트폰 탑재용 임베디드SW 개발 업체**
- '실시간 OS'(real-time operating system)를 개발하여 **全세계 시장의 약 40%**를 점유. 보잉사, GM 등 약 **165개 글로벌 기업에 임베디드SW 납품중** ('08년 매출액 3.3억달러중 73%가 라이센스 매출)



4 시스템 반도체*

* (개념) 기기의 제어·운영을 담당하는 반도체로 자동차, 휴대폰, TV 등 **스마트 융합의 핵심부품 산업**
  - **설계 능력이 매우 중요**하고, **다품종 소량 생산**으로 **일자리 창출**이 뛰어난 **고부가가치* 선진 산업**
    * 스마트폰 원가비중 : SoC 40%, 메모리 15%, 기타 45% 내외

□ (시장)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 및 IT융합 활성화에 따라 **국내외 시장***은 **안정적인 성장이 전망**
  * **세계 시장** (억달러) : ('05) 1,582 → ('08) 1,727 → ('12) 1,950

○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약 3.5%로 스마트폰의 모뎀칩, 자동차의 ECU 등 **주력 내수·수출부품의 수요 급증과 더불어 성장 중**

□ (기업) **삼성전자** 등이 모바일AP 등의 분야에서 **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**[1]하고 있지만, 대부분의 우리기업은 **영세한 수준**[2]
  1) 모바일 AP - 세계 2위, CMOS 이미지센서 - 세계 3위, DDI - 세계 2위
  2) '12년 기준 국내 TOP 50개 팹리스社의 전체 매출액 (17억불)은 퀄컴의 13% 수준

○ 낮은 기술경쟁력으로 인해 핵심 **SoC의 국산화율**은 **5% 미만**
  * 국산화율('12년) : 자동차용 ECU(1%), 모바일용 모뎀칩(1%), 전력반도체(5%)

★ (事例) **韓 (주)실리콘웍스**
- **국내 최고의 '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설계' 전문기업** ('99년 설립, '12년 매출액 : 5억불, '12년 기준 전문인력 : 394명, 로얄티수입 : 매출액 대비 1% - 500만불)
- **독자적인 설계 기술력**을 바탕으로 **디스플레이 패널 핵심부품**의 **국내외 시장을 점유**하고 있으며, **총 매출액 5억불 중 90%이상**이 **애플 등에 수출 중**
- 세계 시장 점유율 중 Driver IC 11.4%, Timing Controller 13% 등

★ (事例) **美 Qualcomm**
- **세계 1위 시스템 반도체 회사** (전문인력 26,000명, 全세계 157개국에 지사)
- **CDMA** 방식의 휴대폰 통신방식을 개발·표준화하여 **관련 칩을 독점·공급** (**세계 시장 점유율 43.8%**, **'12년 매출액 191억달러**의 약 40%가 로열티 수입)



5 바이오*

* (개념) DNA, 단백질, 세포와 같은 **생명체관련기술**을 **활용**하여 **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***
* 기존 의약품 중심에서 질병 조기진단 등 **다양한 기술 등을 생산하는 산업**으로 **확대 중**
  - 同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* 최근 고령화,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의 시대적 난제 해결에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
    * **글로벌 수준**의 **1개 신약의 年간 부가가치**는 **자동차 300만대 수출과 동일**

□ (시장) 글로벌 시장은 노령인구 증가,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 확대 등으로 **年 평균 약 10% 수준**으로 **고속 성장 중**

* **세계 시장** (억 달러) : ('06) 1,537 → ('09) 2,009 → ('12) 3,047

○ 국내 시장은 최근 기업들의 **同 분야 진출 및 투자 확대** 등으로 **年평균 12.7%**씩 **高 성장 중**

* **국내 시장** (억 달러) : ('06) 24 → ('09) 38 → ('12) 53

□ (기업) **국내 바이오 기업들*은 대부분 영세한 상황**

* LG 생명과학만이 **미국 FDA 승인**을 받은 후 **글로벌 신약 1품목을 보유**하고 있을 뿐, **총 921개社 중 1인당매출액 1천만원이상 기업은 약 237개社**

○ 더불어, **국내 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~70% 수준**

★ (事例) **韓 팬젠** (벤처기업)
- 총 14명의 인력으로 시작한 벤처기업 ('02.4월 설립)
- **항체치료제 개발·생산에 필요한 세포주 개발**에 성공하여 미국, 이탈리아, 멕시코 등에 **특허 로얄티 수입만 年 130만불 매출 달성**
  * '12년 기준 : 전문인력 - 14명, 매출액 - 800만불

★ (事例) **美 Amgen**
- **세계 1위 바이오·제약 회사** ('12년 매출액 : 173억달러, 전문인력 : 약 1만명)
- **'80년 7명 전문인력의 벤처기업**으로 **출발**하여 항체, 단백질의약품 개발에 **특화하여 성공**을 거두면서 **세계 바이오 선도기업으로 성장**
  * 글로벌 히트상품 - 빈혈치료제 에포젠,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등
- 제품 매출액이외에 **'12년기준 약 6.3억달러의 로얄티 매출**을 **달성**

[매출액]	[전문인력]
